

언어 학습에 잊혀진 열쇠: 성경말씀

다섯 살 된 꼬마 남자아이가 상점에 들어가 점원을 쳐다보면서 빙긋이 웃으며 말한다. “제 왕관 위에 있는 보석이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점원의 눈길은 단박에 소년에게 향한다. 소년의 붉은색 조끼를 보았을 때, 뭔가 특별한 클럽의 회원임이 분명하다. “나는 플티단(Sparks)이에요”. 소년은 미처 점원이 뭐라 대꾸할 틈을 주지 않은 채 계속 말을 이어나간다. “저는 성경말씀 암송 단원이에요. 제가 성경 말씀 하나 암송해 드릴까요?” 소년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하다. 이 소년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해 보였을 때, 점원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찼다. 이 작은 소년이 암송한 말씀의 축복을 경험하면서.

나는 다섯 살 때부터 어와나(AWANA) 단원이었다. 열심히 워크북을 마치고 보석과 암송판을 받는 것은 당시 내 삶의 큰 기쁨이었다. 당시 어와나의 게임과 활동의 재미에 흠뻑 빠져있었지만, 후에 난 이 경험을 통해 훨씬 큰 것을 선물로 받았음을 깨닫게 되었다. 내 속 사람이, 사람들을 대하는 내 자세가, 더 나아가 나의 경체성이 바로 하나님 말씀 바탕위에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바로 어와나 말씀 암송을 통해, 돌아커볼 때 25년 전에 쌓았던 그 말씀 반석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나의 부모님은 나를 교육하실 때 가능하면 모든 것을 말씀과 관련지어 가르치고자 노력하셨다. 특히 언어를 배울 때는 더욱 그랬다. 시중의 일반 교재 대신, 우리 가족은 성경을 주 교재로 사용해서 읽기, 쓰기, 암기하기, 또한 발음까지 공부했다. 난 이 방법을 매우 좋아하고 감사하게 여겼기 때문에, 나중에 처음으로 선교를 위해 필리핀에 가게 되었을 때, 이 방법으로 필리핀어를 배워야겠다고 생각했다. 다시 성경이 내 교재가 된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 낯선 언어로 다시 외우면서 새롭게 느낀 하나님의 사랑에 전율을 느꼈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 후에 난 중국에 가게 되었고, 이번엔 로마서 6,7,8장을 중국어로 반복해서 외우면서 중국말의 기초를 익혀갔다. 중국어 한자의 강한 이미지는 새롭게 내 영혼을 움직였고, 나는 죄를 극복해 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이로움에 다시 한번 사로잡혔다. 그리고 5년 전, 한국에 오게 되었을 때, 난 요한복음 5장을 내 한국어 학습의 기초로 삼았고, 이 말씀을 한국어로 다시 공부하면서 어릴 적 배웠던 예수님의 가르침이 성경책에서 뛰어나와 내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외국어를 공부하면서 배운 성경 말씀이 새로운 단어와 문장들을 연결 지어주는 틀이 되 주었고, 그 말씀 속의 진리가 영어, 필리핀어, 중국어, 그리고 한국어 ‘세상’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창이 되어주었다. 나는 새로운 언어로 말씀을 암송할 때, 연상을 통해 다른 언어로 암송했던 말씀이 함께 기억나는 즐거움도 발견하게 되었다.



우리는 몰입 교육이 언어를 배우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언어 배우기에 몰입하다 보면, 자연스레 그 언어로 생각하고 그 언어로 생활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즉, 언어와 함께 문화를 포함하여 새로운 정체감도 함께 체득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생각해 볼 때, 새로운 언어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이를 위해 성경을 교재로 삼아 공부하는 것보다 쉬운 길이 어디 있으랴.

성경을 언어 학습에 사용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또 하나 있다. 전경 하나님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으로 서있기 위해 우리는 우리가 배운 언어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선 가치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 생각해보라. 성경으로 영어를 공부한 학생은 이미 세계로 나가 말씀을 나눌 준비가 된 것이다. 사실 한국에 와보니 많은 학생들이 영어 뉴스는 이해하면서 영어 설교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적지 않게 실망했다. 크리스천 부모로서 토플 등의 시험 패스보다 영어로 진리를 나눌 줄 아는 자녀 학습에 관심을 더 기울어야 하지 않겠는가.

성경이면 충분하다! 사실 시중에 나와있는 교재들은 많고 그 중 잘 만들어진 것들도 있다. 하지만 학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많은 교재들이 데이트, 댄스음악, 텁, 공포영화 등의 흥미위주 소재로 이루어졌음을 감안해 볼 때 부모로서 우리는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어떤 영어 ‘세상’에 자녀가 살게 하고 싶은가? 사도바울은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을…(빌립보서 4:8)” 골똘히 생각하라고 하였다. 언어를 학습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에 ‘거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이를 위해 도움이 될만한 자료 몇 가지를 덧붙여 소개하고자 한다.

- 어와나 영어 핸드북 – 자녀의 성경암송을 위해 한국어로 된 어와나 교재를 쓰고 있다면, 영어 핸드북 또한 훌륭한 교재임을 말씀드리고 싶다. 자녀들이 이미 한국어로 말씀을 암송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 말씀을 읽는 것은 훨씬 쉽다. [영어로 말씀을 암송하기](#).
- 성경 CD – 말씀 봉독 CD를 집안에 틀어놓는 것은 언어 감각 향상에 도움이 된다. 그 언어에 대한 지각이 잠재의식 속에 형성되어 갈 것이다. 잠자기 전에 틀어놓는 것도 좋다. 나는 특히 잠자기 전 요한복음의 말씀 듣는 것을 좋아했다. 해당 말씀을 100번 듣는 목표를 세워보면 어떨까? [영어 청취 연습](#).
- 한영 해설 성경 – 한영해설성경은 유용한 어휘와 표현들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좋은 도구이다. 잘 알고 있는 성경 맥락을 통해 표현을 배운 후 실생활에서 연습해보자. [어휘실력 쌀기](#).
- 요한복음 DVD(The Gospel of John) – 이 DVD는 요한 복음 전체를 재미있게 영화화해 놓았다. 이를 통해 성경말씀을 시각적으로 그려볼 수 있고 영어단어에 담긴 그 의미와 뜻을 음미하는데 도움이 된다. 듣고 들은 것을 적어보는 연습을 해보자. 두란노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듣고 쓰기 연습](#).
- www.homeschoolfriend.com 하나님은 크리스천 자녀들의 영어능력 향상 뿐 아니라 성품까지 함께 닦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부담감을 나에게 주셨다. 온라인으로 영어를 배우는 이 홈스쿨프렌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성경적 가치관에 기초한 이야기책(일의 가치, 가족 안에서 섬기기, 배우는 즐거움 등)으로 영어를 배울 수 있다. 이런 가치들이 자녀들의 영어 세상이 되고 이와 함께 진행되는 말씀 암송은 자녀들의 영혼을 더욱 강건하게 해줄 것이다. 수업은 일주일에 4회씩 온라인 강의실에서 진행되며, 선생님은 모두 자녀들에게 좋은 역할 모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엄선된 미 크리스천들이다. 프로그램은 집중 말하기 연습을 통해 말하기에 유창함을 기르는데 초점을 둔다. [말하기 연습](#)

요즘 보면 자녀들의 영어학습에 대해 많은 염려를 하고 있는 부모님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영어교육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다는 부모님들을 보면,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한국 속담이 떠오른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세운 목표뿐 아니라 그것을 위한 수단에도 관심을 가지신다. 여기까지 읽으면서 아직도 고민중이라면, “현대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위대한 인도의 선교사, 윌리엄 캐리를 생각해 보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는 말로 유명한 그는 무려 34개의 언어를 구사하며 이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다. 비단 그뿐 아니라 과거의 많은 선교사들이 성경을 교재로 현지어를 익히곤 했다.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다. “나를 높이는 자를 내가 높이리라(사무엘상 2:30)”. 이 말씀이 여러분 자녀의 학습에도 적용되기를 소망한다.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 주실 것입니다(시편 37:4)”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언어학습을 축복하시기를 빕니다.

Brad Voeller 소개: 7개 언어 습득을 목표로 하는 브래드 보울러(Brad Voeller)는 외국어 배우는 것을 매우 즐기며, 사람들이 빨리 외국어를 습득할 수 있게 돋는 것 역시 좋아한다. 가정사역단체, Family Mission International를 설립하여 한국에서 가정제자훈련(family discipleship)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와 더불어, 홈스쿨프렌드(www.homeschoolfriend.com)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한국의 초, 중, 고등 학생들이 미국 원어민 선생님께 온라인으로 영어를 배우면서 성품 개발도 할 수 있게 돋고 있다.

연락처 : bradv@familymission.org

